

“돌봄,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 공교육이 교육중심 돼야”

尹, ‘늘봄학교’ 주제 민생토론회

“울초부터 늘봄학교 전국 운영
내후년까지 초등 전학년 확대”
“부모돌봄→국가돌봄 나아가야
원하면 기회 누리도록 속도낼 것”

윤석열 대통령이 늘봄학교 현장을 찾아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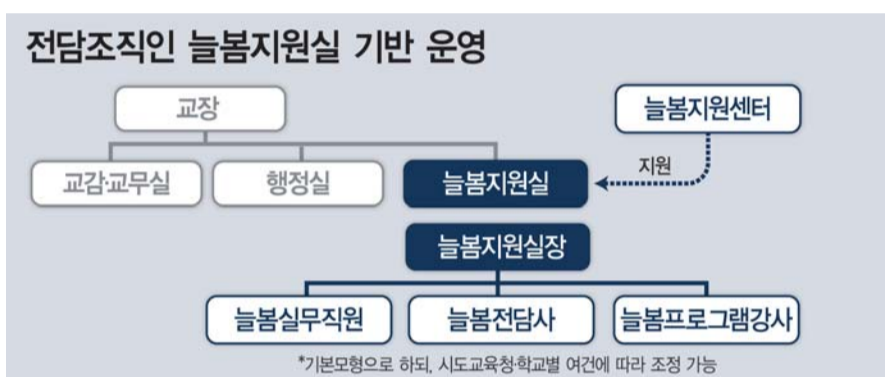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앞서 늘봄학교 방송댄스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대통령실

늘봄학교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아침 수업시간 전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 정규수업 이외의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초등학교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신우초의 늘봄학교 교실을 찾아 방송댄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 기반 운영. *기본모형으로 하되, 시도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자료=교육부 /그래픽 뉴스

스·주산 암산 수업을 참관했다.

윤 대통령은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저도 매우 기뻐했다”며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늘봄학교를 중점 추진해 올 상반기에는 2000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 짐을 정부가 많이 책임지고 털어드리겠다”며 “학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페어런츠 케어(부모돌봄)’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퍼블릭 케어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학교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돼야 한다”며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올해 예비학부모 수요조사에서 83.6%가 늘

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면 누구나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확실히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과 여건에 맞춰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유익한 것들을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육”이라며 “음악, 미술, 체육, 댄스, 연극, 합창, 디지털 활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학교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지자체, 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고, 늘봄학교가 더 알차게 운영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아이들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반려견 치매치료제 ‘제다큐어’ 글로벌 공급

지엔티파마, 美 화이자서 위탁생산
미국 등 21개 국서 구매요청 200건
“판매지역 유럽 등으로 더 확대할 것”



글로벌 빅파마인 화이자가 국내 바이오 벤처 지엔티파마가 개발한 반려견 치매치료제 ‘제다큐어(사진)’를 생산,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시장으로 공급한다. 지난 2021년 국내에서 제다큐어 판매가 시작된 이후 전 세계에서 구매요청이 쇄도하면서 해외 진출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결정이다.

지엔티파마는 5일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신약 제다큐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화이자 센터원과 선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CGMP)에 따라 완제의약품 생산하는 포괄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화이자 센터원은 미국의 세계적인 제약·바이오 기업인 화이자의 자회사로, 세계 30여국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화이자는 제다큐어의 미국, 유럽 등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동물용 의약품 기준에 맞는 위탁제조 및 품질관리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다큐어의 원료의약품인 ‘크리스 데살라진’은 중국 헝디안 그룹의 아펠로아제약에서 생산하고 있다.

지엔티파마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다큐어는 사람의 알츠하이머 치매와 유사한 인지기능장애증후군을 앓고 있는

반려견에서 약효와 안전성이 입증돼 2021년 2월 국내 최초 합성신약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받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한양행에 의해 1800개가 넘는 동물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제다큐어 국내 판매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를 구매하려는 해외 반려인과 동물병원의 요청도 쇄도했다.

최근까지 미국을 비롯한 21개국에서 200여건의 구매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99곳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 13곳, 일본 11곳, 영국 9곳, 멕시코 7곳 등 순이다.

지엔티파마 애니멀헬스사업본부이진환 본부장은 “현재 러시아, 대만 및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제다큐어의 공급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화이자 센터원에서 제다큐어의 생산이 완료되는 대로 판매 지역을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반려동물용협회(APPA)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내 전체 반려견 수는 8970만마리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인지기능장애증후군 환견 수는 노령견 비율(52%)과 발병률(21.4%)로 산출했을 때 998만마리로 추정된다. 유럽은 전체 반려견 수 7200만마리 가운데 환견 수는 801만마리에 달한다.

지엔티파마는 “제다큐어를 미국 시장에 판매할 경우 펫보험 가입률(4%)을 적용했을 때 연간 약 574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펫보험 가입률로 인해 연간 약 114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엔티파마는 최근 글로벌 동물용 의약품 제약사들과 제다큐어 해외 판매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곽병주 지엔티파마 대표이사는 “인지기능장애증후군에 걸린 노령견이 제다큐어를 복용한 후 기억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치료 효과가 임상시험과 시판 후 조사에서 입증됐다”며 “국내 동물병원에서 약효와 안전성이 충분히 밝혀진 만큼 전 세계 반려동물과 반려가족을 위해 제다큐어의 해외 진출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PF 부실’ 새마을금고, 금융위서 상시감독

행안부와 업무협약 체결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 제공



/뉴스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리스크를 금융당국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5일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마을금고를 상시 감독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으로 부실 의혹이 제기되면서 뱅크런(대규모예금인출)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는 최근 주택경기가 다시 침체하면서 새마을금고를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해졌다는 시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3분기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연체율도 같은 기간 2.17%에서 2.42%로 상승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은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정한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행정안전부가 관리한다는 이유로 경영건전성이 별도로 관리됐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공유

한다.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받았던 ▲자본의 적정성 ▲유동성 ▲수익성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도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융기관처럼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새마을금고 검사에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를 검사하기 전 검사 대상 선정과 인력 배정 등의 계획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를 참여시키고, 검사 시에도 새마을금고가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업무협약은 이날부터 1년까지 유효하며, 폐지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갱신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이자 우리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변화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내유리 기자 yul115@